

<p><b>디모데후서 서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로서(A.D. 67) 바울이 쓴 13 편의 서신 중에서 순교를 예상하면서 쓴 최후의 서신이다.</li> </ul>
---
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디모데의 믿음의 칭찬(1:3-5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청결한 양심</li> <li>② 눈물(회개, 기쁨, 감사, 긍휼)</li> <li>③ 거짓없는 믿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디모데의 믿음은 2 세 믿음의 모델이다.</li> <li>●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며, 선악을 분별하는 저울이다.</li> <li>● 참된 믿음은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, 교회에서 자라고,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우리 교회 2 세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(1:6-14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(6 절).</li> <li>②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(8, 12 절).</li> <li>③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이다 (11 절).</li> <li>④ 주께 위탁한 것을 끝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라 (12 절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계속 새롭게 타올라야 한다.</li> <li>●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다.</li> <li>●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어떻게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?</li> <li>●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나보다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의미를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붙들고 있는가?</li> <li>● 나는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세 가지 기본자세 (2:3-6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좋은 병사(3 절)</li> <li>② 경기하는 자(5 절)</li> <li>③ 수고하는 농부(6 절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.</li> <li>● 경기하는 자는 법(말씀)대로 해야 면류관을 받는다.</li> <li>● 농부는 수고를 통해 곡식을 거둔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에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 있는가?</li> <li>●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?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가?</li> <li>● 나는 편하게 믿는 신앙인가? 아니면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앙인가?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인정받는 일꾼의 특성(2:14-2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(14 절).</li> <li>②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 (15 절).</li> <li>③깨끗한 그릇이 된다 (21 절).</li> <li>④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(22 절).</li> <li>⑤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(25 절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.</li> <li>● 세상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.</li> <li>●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공동체가 악한 영향에서 지켜질 수 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?</li> <li>● 나의 교제는 나의 유익에만 초점이 있는가? 아니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 초점을 맞추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말세에 고통 하는 때의 특징(3:1-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자기 사랑</li> <li>②돈 사랑</li> <li>③쾌락 사랑</li> <li>④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. 말세에는 이러한 기본이 무너진다 (교만, 비방, 부모거역, 무감사, 무거룩, 무정, 무용서, 모함, 무절제, 사나움, 선한 것을 싫어함, 배신, 조급, 자만, 외식)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?</li> <li>● 나는 악성종양처럼 퍼지는 말세의 현상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말세를 말씀으로 준비하라. 말씀의 유익 (3:13-1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.</li> <li>②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.</li> <li>③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(교훈-책망-바르게 함-의로 교육하기에 유익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경을 희미하게 알지 않으려면 배우고, 확신하고, 그 안에 거해야(적용) 한다 (3:14).</li> <li>● 말세의 도전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말세의 도전 앞에 무방비로 쓰러지는가?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,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고 있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말씀을 전파하라 (4:1-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(1 절).</li> <li>②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(2 절).</li> <li>③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사욕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말세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전파이다.</li> <li>●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맡겨 주신 사역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점점 깊어 가는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나의 자세는 동화인가? 아니면 변혁인가?</li> <li>● 세상을 거슬러 가며 살 때 당면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?</li> </ul>

<p>따라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(3, 4 절).</p> <p>④바울의 유연적 신앙고백  “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” (4:7-8).</p>	<p>주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잠깐 있다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?</li> <li>●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설 것인가? 기쁨으로 설 것인가?</li> </ul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